오늘도 루케테는 여전히 어둡고 적적합니다.

한창 정비를 하며 주변을 경계하고 있을 무렵, 카시어스 선생님으로부터 통신이 도착했습니다.

카시어스:

--

우리를 이 상황으로 몰아넣은 하나의 원흉, 한때 마법학교의 교장이던 마그너스가 우리 앞에 볼품없이 쓰러져 있습니다. 몇 년 간, 어둠의 조각이 내뿜는 힘을 온몸으로 감당하느라 이미 상당히 약해진 상태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파괴적인 힘을 지닌 어둠이니까요. 비록 온전하지 않은 조각이라고 해도… 운명을 타고난 아르카나나 우리들이 아니라면 분명 온전히 견디기 힘들었을 터입니다.